

### 전남개발공사, 음료·그늘·휴식 나눔 캠페인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지난 2일까지 이틀간 장마 이후 지속되는 높은 습도와 폭염을 맞아 광주시도시공사와 함께 건설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GO(음료·그늘·휴식) 나눔' 캠페인을 광주·전남 공사장에서 실시했다. (사진)

실의작업에서 온열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양 기관은 지난 2023년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음료·그늘·휴식 나눔' 캠페인을 공동으로 기획해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음료 차량 및 물품(쿨토시, 쿨스카프 등) 지원과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 교육 등에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대, 전남바이오진흥원 컨소시엄과 협약



전남대학교는 최근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컨소시엄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 개발원조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협약식에는 전남대 인공지능에그리텍연구센터 및 디지털융합인력양성사업단(이경환교수), 전남대 민주주의와공동체연구소 국제개발협력센터(김재기 교수), 전남대 광주국제개발협력센터(김영열 센터장) 등 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 협약으로 전남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형 축산분뇨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JBF 컨소시엄에 인적자원과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교육기부 인증기관 3년 연속 선정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원장 박명숙)은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이 전남교육청으로부터 앞으로 3년간 교육기부 인증기관으로 3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사진)

'전남 교육기부 인증제'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 환원 및 나눔 문화 정착에 앞서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을 발굴·선정하는 제도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과 함께 '전국민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교대, 교보문고와 디지털 교재 활용 협약



광주교육대학교(총장 허승준)는 지난 1일 교보문고(대표이사 안병현·김상훈)와 디지털 대학 교재 활용 서비스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광주교대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허승준 총장과 교보문고 eBiz 이승은 본부장,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 내용은 사범사업기간(2024년 2학기) 동안 학부 수업용 디지털 교재 무상 제공, 디지털 교재 피드백 수집 및 관련 연구를 통한 디지털 교재 개선 등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호남대, 청소년 대상 '홈메이드 베버리지 클래스'



호남대학교 호텔컨벤션학과(학과장 이희승)는 최근 교내 디지털 실습실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홈메이드 베버리지 클래스'를 운영했다. (사진)

대학혁신사업단(단장 송창수)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

### 광산구 구립 초록숲어린이집 좋은이웃어린이집 현판식



구내이비스호남총청권역본부(본부장 정유진)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에 위치한 구립 초록숲어린이집(원장 박명숙)에 '좋은이웃어린이집' 현판을 전달했다. (사진)

구립 초록숲어린이집은 아프리카 모잠비크 아동을 일대일 결연하며 국내·외 아동들의 권리를 지키는 '약속의 시작'에 참여했다. 박명숙 구립 초록숲어린이집 원장은 "작은 나눔 실천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구내이비스와 함께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KBS1	KBS2	MBC	KBC/SBS
00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07	50 인간극장	00 생생정보 스페셜 30 올림픽 하이라이트	00 광주 MBC 뉴스투데이 30 생방송 오늘 아침	10 KBC 모닝와이드 30 SBS 파리 2024 하이라이트
08	25 아침마당	00 2024 파리 올림픽 중계식	30 2024 파리올림픽 하이라이트 파리 타임	15 모닝와이드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930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날	55 SBS 10 뉴스
10	00 동네 한 바퀴(재) 55 KBS 대기획 3부작 방해(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뽀뽀 좋아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45 팔도밥상 스페셜	00 KBS 드라마 스페셜 셀렉션 <나의 흑역사 응답노트>	15 헬로킴즈 과학교실(재) 30 도덕도덕 꼬모 새로운 탐험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5 올림픽 하이라이트 봉주르 파리	2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어벤져스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2024 파리올림픽 하이라이트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SBS 파리 2024 하이라이트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0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프리미어 25 헬로킴즈 TV생물도감 55 2시 뉴스 외전	40 생활의 달인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25 남도지도 그래픽(재) 45 KBS광주 열린마당(재)			
3	50 2024 파리 올림픽 <서핑>	00 여기는 파리 <사격/배드민턴/다이빙/탁구/스프츠클라이밍>	55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다이빙/사격>	30 SBS 파리 2024 <배드민턴/사격/클라이밍>
4				
5				
6	00 2024 파리 올림픽 <스프츠클라이밍/트라이애슬론>			
7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수지맞은 우리 스페셜	00 여기는 파리 <배드민턴/탁구/다이빙>	30 2024 파리올림픽 <체조/레슬링/다이빙>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2024 파리 올림픽 <다이빙/사이클>			00 SBS 파리 2024 <다이빙/레슬링>
10				
11				
12			00 2024 파리올림픽 <사이클트랙/육상>	

###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40 유아 클래스e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05:30 클래스 e	10:10 탑골스타 개칭이	16:55 슈퍼왕스 일렉트릭 히어로즈(재)
05:5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7:10 명탐정 피트4
06:1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드래곤 길들이기: 아홉 왕국의 전설
07:00 미스터리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10 EBS 뉴스
07:15 빅 블루	12:00 EBS 뉴스 12	18:30 글로벌 특선 다크 스페셜
07:3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2:10 극한직업	19:20 고향만국
07:4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탑골스타 개칭이
08:00 당동맹 유치원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30 오우오우 내 새끼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루마니아 소문 탐사기-소문난 풍경>
08:35 슈퍼왕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15:15 클래스 e	21:35 한국기행 <물 만났네, 여름 1부 고성 바다는 사랑을 싣고>
08:50 도레미 프렌즈	15:55 불록스	21:55 PD로그
09:00 뒤죽박죽섬의 빅포맷일리 쇼츠	16:10 당동맹 유치원(재)	
09:05 엄마 까투리	16:30 파파 피그	
09:20 미리 가본 대학	16:40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5일(음 7월 2일辛丑) ☎ 010-9790-8237

<p>36년생 정성을 다했을 때 미련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48년생 환심을 사기 위한 제스처에 미혹되면 곤란하다. 60년생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낫다. 72년생 생 한계선을 허용한다면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84년생 제대로 살펴보고 임해야 할 것이다. 96년생 처음에 승세를 잡지 않으면 갈수록 힘들어진다. 행운의 숫자 : 35, 80</p>	<p>42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진취적인 자세가 아쉽다. 54년생 별로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따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66년생 이변에 제게해 버려야 후환이 없다. 78년생 상스러운 빛이 비치니 길한 조짐으로 봐도 된다. 90년생 주라 갔다가 오히려 받고 오는 양태이다. 02년생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이다. 행운의 숫자 : 37, 58</p>
<p>37년생 복잡다단한 일로 인해서 감피를 못 잡을 수도 있다. 49년생 내세운다면 서로 맞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61년생 현재는 허찰더라도 장래에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겠다. 73년생 구분하지 않고 함께 다루는 것도 괜찮다. 85년생 노력 못지않게 우연한 행운도 따라준다. 97년생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뒤돌아다 보라. 행운의 숫자 : 01, 67</p>	<p>43년생 불변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겠다. 55년생 방심하는 순간에 현상이 일어난다. 67년생 절차와 순서가 있는 법이거늘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다. 79년생 커다란 행운이 보이지는 않지만 대고도 없느니라. 91년생 막연한 생각에 그친다면 현실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03년생 중요한 점을 간파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2, 91</p>
<p>38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며, 갈구해 왔던 바를 이룬다. 50년생 서로 맞대어서 꼼꼼하게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62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다면 과감하게 전환하라. 74년생 생 기대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서 만족스러워하는 국량이다. 86년생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98년생 대부분 양호하니 약간만 손질하면 된다. 행운의 숫자 : 91, 73</p>	<p>44년생 현재 상태대로만 진행하면 더할 나위 없겠다. 56년생 한번 정해지면 계속하는 것이 제일 낫다. 68년생 정성을 다하다 보면 길한 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80년생 기본적인 역할에 반쯤이 없어야겠다. 92년생 신속한 대응 조치가 절실한 때이다. 04년생 근본적인 타개책의 마련으로 부심하라. 행운의 숫자 : 05, 69</p>
<p>39년생 오랫동안 사일을 끌어왔던 일이 시원하게 해결되리라. 51년생 변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백번 낫다. 63년생 현실적이고 가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방하다. 75년생 공허한 명분 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할 때이다. 87년생 경험에 비추어 냉정하게 판단하기 좋다. 99년생 가서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98</p>	<p>45년생 안전지 아닌지 다음에 펼칠 때 오히려 압축 효과도 커진다. 57년생 일취월장의 진척이 있을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69년생 확실한 조짐이 보이니 놓치지 않도록 하자. 81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거늘 미련 없이 거두어 들여라. 93년생 새장에 갇힌 새가 구름을 그리워하는 격이다. 05년생 돈이 좀 들어올 수다. 행운의 숫자 : 43, 74</p>
<p>40년생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2년생 일방적으로 행한다면 반드시 무리가 따르게 되어 있다. 64년생 처음에는 난감할 것이나 점차 자리를 잡는다. 76년생 처리하는 과정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도 물어간다. 88년생 고르게 처리해야 용이함을 꾀한다. 00년생 앞서 가려 한다면 오히려 악화하리라. 행운의 숫자 : 30, 87</p>	<p>46년생 번거로운 편이 의미도 없다. 58년생 주어진 국량에 적절하면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70년생 완급 조절을 잘하지 못한다면 역을 부른다. 82년생 현실성이 없으니 아예 꿈도 꾸지 말라. 94년생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06년생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하다. 행운의 숫자 : 13, 77</p>
<p>41년생 지금 진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다. 53년생 무모함은 피해를 부르기도 한다. 65년생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 77년생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국세이다. 89년생 숨은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 결정적인 시기이다. 01년생 열과 성을 다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7, 97</p>	<p>35년생 좌우지간에 걸려들면 복잡하게 되어 있다. 47년생 시간을 쪼개서라도 먼저 행해야 할 일 있다. 59년생 복잡하기는 하지만 노력하면 양호해진다. 71년생 의무를 다하고 나면 바람직한 국면에 처하리라. 83년생 이치에 맞지 않으면 순서 거두어 들어가는 것이 백번 낫다. 95년생 진정한 마음의 전달이 전환점을 마련한다. 행운의 숫자 : 44, 83</p>